

# 광주시내버스 또 파업 예고... ‘시민의 발’이 협상 도구?

## 준공영제 이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연례행사 여전 시민들 “서비스 개선 뒷전, 잇속 먼저 챙기나” 비판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오는 23일 새벽 4시부터 973대의 시내 버스가 멈춰서게 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로 네 번째 파업 예고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한 뒤에도 여전하다.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을 불모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임금 인상 등 협상안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적지 않다.

◇첨출질 않는 ‘파업 예고’=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이하 버스노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 13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참가한 조합원 1063명 중 92.6%(986명)가 찬성,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노동쟁의 신고까지 했었다.

버스노조는 그러나 파업 예고 뒤 사측과

협상에 나서 ‘임금 인상’ 등을 약속받은 뒤 파업을 멈췄다. 우려했던 시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준공영제가 도입, 시민 열세가 투입되는데도, 버스노조가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시민을 불모로 하는 게 타당하냐는 점이다.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의 ‘전략’은 나쁘지 않았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회사 인건비(운전원 인건비 총액 기준)는 ▲2008년 728억(3.59%) ▲2009년 738억(1.45%) ▲2010년 779억(5.60%) ▲2011년 813억(4.25%) ▲2012년 867억(6.75%) ▲2013년 903억 원(4.16%) 등 해

마다 1%~6% 가량 인상됐다.

월 평균 24일 근무하는 운전원(4호봉 기준·8~10년 근속근무)의 지난해 월급은 316만9000원. 2012년 297만5000원보다 3.55%(19만4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70만4000원·287만3000원 등이었다. 광주지역 택시기사 월급(130만~150만)에 견줄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임금 등 근로 여건은 크게 개선된 반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민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서비스는 좋아졌다=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8년, 시민

들이 바라보는 운전기사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준공영제 도입 전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그간 투입된 218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시내버스 친절도·안전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 지난해 광주시에서 제출한 ‘2013 광주시 시내버스 시민서비스 평가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친절도·안전성·편의성·정결성·쾌적성·기타 의견 등 6개 항목을 종합한 시민만족도 점수는 84.56점. 지난 2012년 78.51점에 비하면 6.06점 올랐다.

반면, 친절도(승객응대 및 교통약자 배려 등)와 안전성(급정거·난폭운전·운전태도 등) 점수는 82.78점·79.50점으로, 종합

준공영제 이후 인건비 보너스 (운전원 인건비 총액 기준)	
• 2008년 728억원 (3.59%↑)	
• 2009년 738억원 (1.45%↑)	
• 2010년 779억원 (5.60%↑)	
• 2011년 813억원 (4.25%↑)	
• 2012년 867억원 (6.75%↑)	
• 2013년 903억원 (4.16%↑)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8년 광주시 투입 예산 2186억원	
----------------------------------	--

점수보다 1.78점과 5.06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된 예산을 고려하면 더 수준 높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교육부는 전임자 학교 복직 명령 전교조는 27일 조퇴 투쟁하기로

### 합법노조 자격 상실 판결 파장 광주·전남 교육청도 골머리

19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자격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교육부도 이날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는 ▲7월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무효화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들의 복직 문제다.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등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전교조 전임자는 총 7명이다. 광주가 3명, 전남이 4명이다. 복직하더라도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이들 대신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가 모두 해고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해고되고 전임자는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담당교과목이나 담임교사 부재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전교조의 조퇴투쟁·연가투쟁 등도 예고돼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21

전교조 약사	
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
1994년 3월	정부, 1527명 파면·해임
1999년 7월1일	전교조 조건부 복직
2010년 3월	합법노조 인정
2012년 9월	정부 '해직자 인정' 규약시정 명령
2013년	정부, 2차 시정 명령
9월23일	정부, 규약 개정 촉구 통첩
10월	전교조 총 투표
16~18일	시정 명령 거부
10월24일	정부, 법외노조 통보
11월1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014년 6월19일	소송 패소

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전임자 복직 문제 등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광주·전남 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만큼 이들의 조직적인 대응도 주목된다.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현직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인정해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복직과 사무실·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보가 오면 그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도 “전교조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인없는 간판 정비 북구청 안전총괄과는 19일 문흥동 한 상가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폐업한 상점의 노후된 옥외간판을 정비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음주운전 적발 40분 뒤 또 운전하다 적발 차량 열쇠 준 경찰관 책임은?

### 도로교통법 규정에 “운전 금지”

50대 운전자가 40여분 만에 두차례 나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첫 단속에 적발된 뒤 보관하던 차량 열쇠를 운전자에게 돌려주면서 발생한 일인데,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A(54)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11시 44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인근 술집에서 운암동 금파공고 앞길까지 1km를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에 달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차량 열쇠를 건넸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40분 가량 흘렀을까.

A씨는 11월 11일 새벽 0시 25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자동차 전용도로를 4km 가량 달리다 유덕톨게이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다시 단속됐다. 이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다. 전날 밤 11시 44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41분 만에 또 음주단속에 걸린 것. A씨는 이 때

야 비로소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47조 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6월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족·친구·대리기사’ 등에게 신병 및 차량 인수 인계 완료 때까지 차량 보관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었다.

이 때문에 A씨의 잘못된 음주운전 외에도 적절한 조치 대신,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준 경찰의 ‘부주의함’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구형에 앞서 음주운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

## 대낮 여성 납치 신고에 경찰 출동...알고보니 ‘사랑 싸움’

○백주 대낮 광주의 한 도로에서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차로 납치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주요 도로에서 유모(21)씨가 여자친구인 양모(19)씨와 싸운 뒤 차에 태워 데리고 간

것을 보고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 50명을 투입,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이들을 찾아낸 경찰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인 이들이 도로에서 잠시 싸운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이 납치사건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도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좀더 조사를 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5. 5월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우원!

권/장/업/종

- 1층 금웅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랑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휘트니스센터 등

##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보증으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람(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양호수공원